

수산업 미래성장 산업으로 발전 도모

해양수산 신지식인연합회, '해양수산인재 육성의 날' 선포식 군산 GSCO서 개최

해양수산 신지식인연합회(회장 문승국)는 14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제1회 해양수산인재 육성의 날' 선포식을 갖고 수산업의 미래 비전을 밝혔다.

'해양수산인재 육성의 날'은 2007년부터 10년을 이어온 '한국해양수산 신지식인 학술대회'의 정신을 계승하여 급격히 변화하고 있는 대내외적 환경에서 우리나라의 수산업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인재육성에 노력하고자 진행된 것으로, 주요 해양수산 기관·단체와 관계 공무원, 수산계 고교생 및 대학생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행사는 (사)해양수산신지식인 중앙연합회에서 주최하고 해양수산부, 전북도, 군산시의 후원으로 개최되어 해양수산 인재육성 포럼, 2017년 신지식인 선정자 우수사례발표와 정부포상 등의 프로그램이 이어졌으며,

특히 문승신 군산시장은 제1회 해양수산인재육성의 날 공로자로 선정되어 공로패를 수여받았다.

또한 해양수산 신지식인연합회에서는 미래 해양수산업을 이끌어 나갈 수산업계 학생들에게 1:1 맞춤형 취업 보장 장학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신지식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실습과 취업이 이어지는 연계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혀 해양수산업계의 희망과 기대감을 높였으며,



해양수산 신지식인연합회(회장 문승국)는 14일 군산 새만금컨벤션센터(GSCO)에서 제1회 해양수산인재 육성의 날 선포식을 갖고 수산업의 미래 비전을 밝혔다.

이번 선포식을 통해 군산대학교 측에 1억원 상당의 교육상품권을 지급하고, 앞으로도 매년 해양수산 인재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혀 '해양수산인재 육성의 날'에 그 의미를 더했다.

한준수 군산시 부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이번 행사는 혁신적인 사고와

지식으로 성공한 수산업의 사례를 공유하고, 수산업의 미래 100년을 위한 인재육성을 실천에 옮긴 의미 있는 기념식"이라며 "앞으로 수산업이 전통적 가치를 기반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발전하고 미래성장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사)한국해양수산신지식인중앙

연합회는 2005년 12월 해양수산업의 리더 역할 수행하고 있는 신지식인 250여명이 모여 설립한 단체로 신지식인 인재육성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어촌발전을 위한 연구사업 및 정책 건의, 후계 어업인력 육성, 수산관련 정보화 및 역량 강화 등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사)한국해양수산신지식인중앙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시정발전 방향 모색 군산시, 어린이·청소년 정책제안대회 공모 접수

군산시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시정발전 방향과 문제점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오는 22일까지 2017년 어린이·청소년 정책제안대회 공모를 진행한다. '어린이행복도시 군산'에 비한다는 주제의 이번 공모는 관내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어린이 권리광장(맘껏광장) 조성, ▲어린이 놀이공간 조성, ▲어린이 생활(교육, 복지, 안전 등)을 위한 정책 ▲기타 어린이와 청소년이 행복할 수 있는 제도 및 정책 등 총 4개 분야 중 1개 분야를 선택하여 신청서와 제안서를 작성하여 방문 또는 이메일(paradis1974@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심사 및 시상은 1차 서면심사와 2차 스피치 심사를 거쳐 우수정책 제안자 1위~3위 각 1명과 그 밖에 스피치 심사 참가자에게는 장려상으로 군산시장상을 수여할 계획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판'의 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최성근 어린이행복과장은 "시에서는 이번 정책제안 대회를 통해 어린이와 청소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직접 알아보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제안에 대해서는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이 행복한 군산의 밝은 미래를 열겠다"고 밝혔다.

원광대병원 이식혈관외과 소병준 교수 대한혈관외과학회 회장 취임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최두영) 이식혈관외과 소병준 교수가 최근 서울 그랜드힐튼 호텔에서 개최된 대한혈관외과학회 추계 학술대회에서 대한혈관외과학회 회장으로 취임했다고 14일 밝혔다.

소병준 교수는 전북대학교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 네브래스카대학 의과대학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원광대학교병원 혈관외과과장과 의료질관리실장, 진료처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원광대학교 의과대학 혈관외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교수는 대한외과학회, 대한이식학회,



소병준 교수

대한장막학회, 대한중풍맥류학회, 대한혈관외과학회 등에서 이사를 역임했다. 대한혈관외과학회는 34년의 전통을 있는 혈관외과 질환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학회로 소병준 교수의 수월한 연구 성과와 논문 발표, 학회의 발전을 위한 부단한 노력의 공을 인정받아 이번 총회에서 회장으로 임명됐다.

소병준 회장은 "34년 역사와 전통을 이어온 대한혈관외과학회 회장으로서 앞으로 1년 동안 봉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여러 선배 동료 및 후배 회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회원님들의 권익옹호, 친목도모와 국제적 학문 교류 등 학회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문화·관광 활성화 노력 다짐

익산시·원광대학교병원 상호 교류 협약 체결

익산시와 익산원광대학교병원은 11월 14일 오전 시청 소회의실에서 업무 협약을 맺고 익산시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서로 노력할 것을 다짐했다.

원광대학교병원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직원과 가족들에게는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게 됐으며, 예술의전당과 보석박물관은 시민 홍보와 안정적인 관람객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양 기관은 공연문화 및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상호간의 관심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발전시키는 데 노력할 것을 상호 합의했다. 특히 예술의전당 기획공연 예매와 보석박물관 이용 시 다양한 할인혜택 제공과 병원 측이 희망하는 공연에 대해 공동협력 추진이 가능하다.

원광대학교병원은 예술의전당 및 보석박물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 및 참여에 적극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원광대학교병원은 직원 150여명이 가족을 포함하면 약 6,000여명의 시민 홍보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1,202석의 규모를 가지고 있는 예술의전당은 연간 20건 이상의 양질의 기획공연과 전시를 통해 많은 시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다.

보석박물관은 국내유일의 보석박물관으로 11만8,000여점의 보석과 화석들을 소장하고 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이번 협약이 시 발전이 되어 문화관광 분야에 관심이 있는 다른 기관·단체에도 확대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 평생학습 서포터즈 스쿨 성료

군산시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올해 7월부터 시작한 '군산 시그널 평생학습 서포터즈 스쿨'이 지난 10일 성황리에 마친 가운데 참여한 총 20명에 대한 수료식을 갖고 평생학습 현장의 소식을 전하는 등 홍보활동을 위해 나선다.

'군산 시그널 평생학습 서포터즈 스쿨'은 군산에서 활동하는 행복학습 매니저와 강사 등을 대상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으로써, 총 13차례에 걸친 교육을 이수한 서포터즈들은 군산시의 평생학습 현장과 소식 등을 널리 홍보하며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펼치는 홍보 도우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 서포터즈 스쿨은 전북도 평생교육운영위원 서재복 전주대 교수의 '4차 산업시대 자기주도 평생학습 역량강화'를



군산시 평생학습 서포터즈 스쿨 수료식 모습

시작으로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평생학습 홍보 전략과 모니터링 방법 등 주된 밀착형 평생학습 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강좌들이 진행되었다.

고대성 인재양성과장은 "첨단기술들이 개발되고 4차 산업시대에 적용되는 기술들을 교육하고 배움으로써 평생교육을 통한 접근 가능성을 높이고, SNS를 통해 다양한 매개체로의 평생학습의 장을 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근 기자

고맙습니다! 적십자회비

나눔이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참여해 주신 적십자회비는 경주지진, 태풍 차바, 화재 등 각종 재난을 당한 이재민과 소외된 이웃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올해도 적십자회비로 희망을 전하세요.

금융기관

가상계좌

인터넷

전화

편의점

신용카드 포인트

QR코드

홈페이지 www.redcross.or.kr
정기후원·긴급지원 문의 1577-8179

홍보대사 안재욱